

사회복지사, 경찰관과 함께하는  
2024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사회복지사, 경찰관과 함께하는  
2024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사회복지사, 경찰관과 함께하는  
**2024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 **발간사&축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발간사	04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축사	05

● **사업소개 및 현황**

사업개요(목적, 목표,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현황 등)	07
PART 1. 사회복지관	10
PART 2. 경찰청	13

● **사회복지관 이야기**

<b>보건복지부장관 표창</b>	18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포기하는 순간 찾아 온 “단비”같은 순간	
- 삶을 다시 세우는 작은 기적	

<b>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b>	22
[경기 안산시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가족 해체의 위기 속에서 피어 오른 정	
- 등돌린 가족이 마주보기까지	

<b>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b>	26
[전북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가장의 빈자리를 채워 다시 설 수 있도록	
- 삶의 희망을 찾아서	

<b>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b>	30
[대구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가장의 자리에 선 소년 소녀의 꿈	
- 어른의 자리를 대신하여 살아 온 소녀	

<b>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b>	34
[충남 당진북부사회복지관]	
간호사로 자립할 그날을 향해	
- 자립준비청년의 희망 회복기	

● **경찰청 이야기**

<b>행정안전부장관 표창</b>	40
[강원 동해경찰서]	
불신과 분노에서 신뢰와 희망으로	
- 강도상해 피해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기	

<b>경찰청장 표창</b>	44
[서울 구로경찰서]	
폭력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찬 미래로	
-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위기 탈출기	

<b>경찰청장 표창</b>	48
[서울 관악경찰서]	
마음의 상처를 딛고 평온한 삶으로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찾기	

<b>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b>	52
[충북 흥덕경찰서]	
상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의 일상 회복기	

<b>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b>	56
[대구 달서경찰서]	
폭력 없는 환경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기	

# 발간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진옥동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진옥동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 한 자리에 모이면 우리 사회에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성들이 힘을 합쳐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나눔의 소중함에 더욱 눈부신 빛을 더하며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한 단계 확장하고자,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까지 지원의 손길을 넓혔습니다. 사회복지관과의 기존 협력 또한 더욱 내실 있게 이어가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194가구, 5,184명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 재해·재난구호비 등 약 34억 원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회복지사-경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집」은 이번 지원사업의 결실입니다.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10개 가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그려보았습니다. 범죄 피해를 딛고 용기를 되찾으신 분들,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분들의 감동적인 변화와 함께, 이를 위해 헌신해주신 사회복지사와 경찰관들의 노력과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 사례집이 우리 사회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전하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정성기

사회복지 정책은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혁신과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관은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유일한 종합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협회는 전국 사회복지관과 약 1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자원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신한금융희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주거·의료 긴급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바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한 사례들을 모은 소중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관과 경찰청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정착을 이끌어낸 사례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2024년 사업은 경찰청과의 연계를 포함해 총 2,194가구, 5,184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으며, 그 숫자 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변화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우수사례 공모전과 사례집 발간, 전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현장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경찰청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이고 긴급한 욕구에 맞춘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사회복지관, 경찰청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취약계층에게 희망과 안정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 소개 및 현황

사업개요(목적, 목표,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현황 등)  
PART 1. 사회복지관  
PART 2. 경찰청

## 01 2024년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사, 경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 1. 사업목적**
  - 사회복지사, 경찰관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
- 2. 사업목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회복지관·경찰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지지체계 마련 및 일상회복 지원
  - 우수사례 공유 및 사회복지사·경찰관 시상을 통한 나눔의 가치 확산과 사회적 연대 강화
-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관 및 경찰청
  -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신규 및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
    - 경찰청: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찰청 추천을 통해 의뢰된 범죄피해 대상자
  -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가구별 상황과 욕구에 따른 영역별 지원
    - 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 우수 사회복지사, 경찰관 표창 및 역량강화 지원 등
  - 지원처: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희망재단)





#### 4. 세부내용

##### ■ 세부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li> <li>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 사례* - 최대 100만원</li> <li>집중 사례** - 최대 300만원</li> </ul>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의원 진료비 및 치료비, 약제비,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li> <li>갑작스런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 치료비, 수술비 등 본인 부담금</li> </ul>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학습 및 진로지원, 학습물품 지원 등</li> <li>단, 취미·예체능 등 사설학원 수강료,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비 제외</li> </ul>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li> <li>기타 긴급주거비</li> </ul>	
사례관리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중사례 수행기관 대상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 사례관리 전문가 솔루션 회의비 등 기관 사례관리 진행비 활용 ※사회복지관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중사례 당 20만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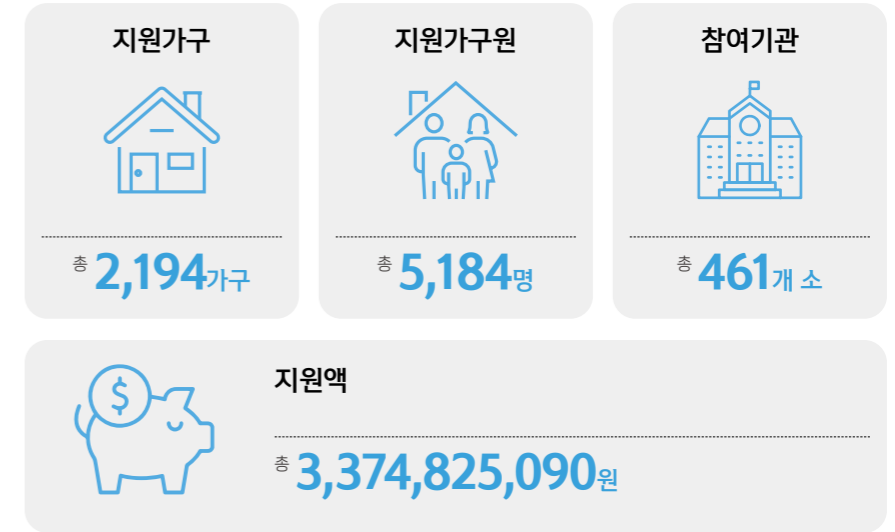
- 단순 사례\*
  - 복합적 문제·위기 상황이 있으나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단순하고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수행기관 사례관리 등급이 단순(일반 등)인 가구
  - 최초 신청기관(사회복지관, 경찰청)의 판단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집중 사례\*\*
  -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지속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연한 문제 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가구 등
  - 질병의 급격한 재발 및 건강 악화로 치료가 시급한 경우
  - 갑작스런 위기(사고, 실직, 사망 등)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 등
  - 수행기관 사례관리 등급이 집중(긴급, 위기 등)인 가구
  - 최초 신청기관(사회복지관, 경찰청)의 판단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금 필수 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료진료 및 성형비용) 지원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등 지원 불가

##### ■ 지원현황

- 전체 지원현황



# part 1. 사회복지관

## 지원가구 (단위: 가구)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총계
단순사례	142	125	139	164	304	874
집중사례	76	74	83	81	-	314
총계	218	199	222	245	304	1,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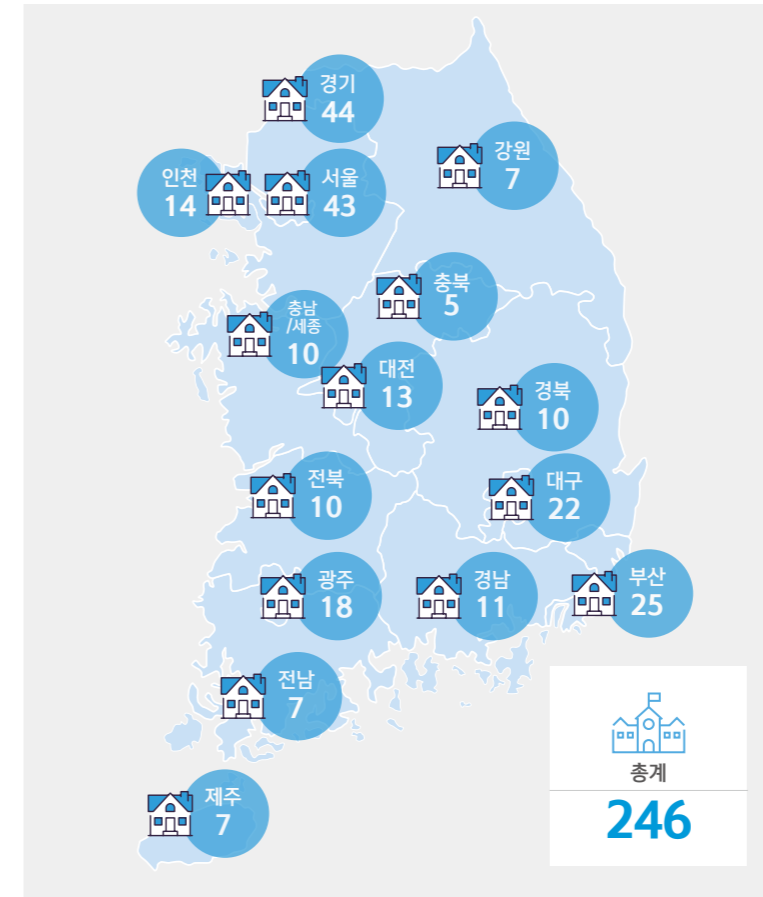
## 지원가구원 (단위: 가구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총계
단순사례	317	278	312	348	608	1,863
집중사례	205	171	217	209	-	802
총계	522	449	529	557	608	2,665

##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총계
단순 사례	142,000,000	124,299,000	139,000,000	163,540,000	303,310,000	872,149,000
집중 사례	228,000,000	220,930,000	246,924,820	238,541,270	-	934,396,090
집중 사례 운영비	15,200,000	14,800,000	16,800,000	16,200,000	-	63,000,000
총계	385,200,000	360,029,000	402,724,820	418,281,270	303,310,000	1,869,545,090

# 사회복지관 지역별 참여기관명



## 경기

- 고강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원돌종합사회복지관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
- 남양주시사회복지관 서부희망케어센터
- 녹양종합사회복지관
- 능실종합사회복지관
- 도촌종합사회복지관
- 삼정종합사회복지관
-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 안산시부곡종합사회복지관
-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
-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 연무사회복지관
-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 와동종합사회복지관
- 용인종합사회복지관
- 율목종합사회복지관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철산종합사회복지관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 판교종합사회복지관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 광주

- 각화종합사회복지관
- 금호종합사회복지관
- 꿈나무사회복지관
- 농성빛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두암종합사회복지관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 시민종합사회복지관
- 시영종합사회복지관
- 쌍촌종합사회복지관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 인애종합사회복지관
- 첨단종합사회복지관
- 하남종합사회복지관
-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 인천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 구월종합사회복지관
- 만수종합사회복지관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 삼산종합사회복지관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 송림종합사회복지관
- 송의종합사회복지관
- 연수종합사회복지관
-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 인천종합사회복지관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 강원

- 법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 원주종합사회복지관
- 인제군사회복지관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동작이수사회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중앙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중남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 경남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구산사회복지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충남세종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탕정안마을종합사회복지관  
홍성사회복지관

##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제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청곡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다대종합사회복지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 경북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김천부곡사회복지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 충북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 대전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송강사회복지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 전북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남원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전남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 part 2. 경찰청

### 지원가구 (단위: 가구)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총계
단순사례	122	147	146	126	212	753
집중사례	58	71	57	67	-	253
총계	180	218	203	193	212	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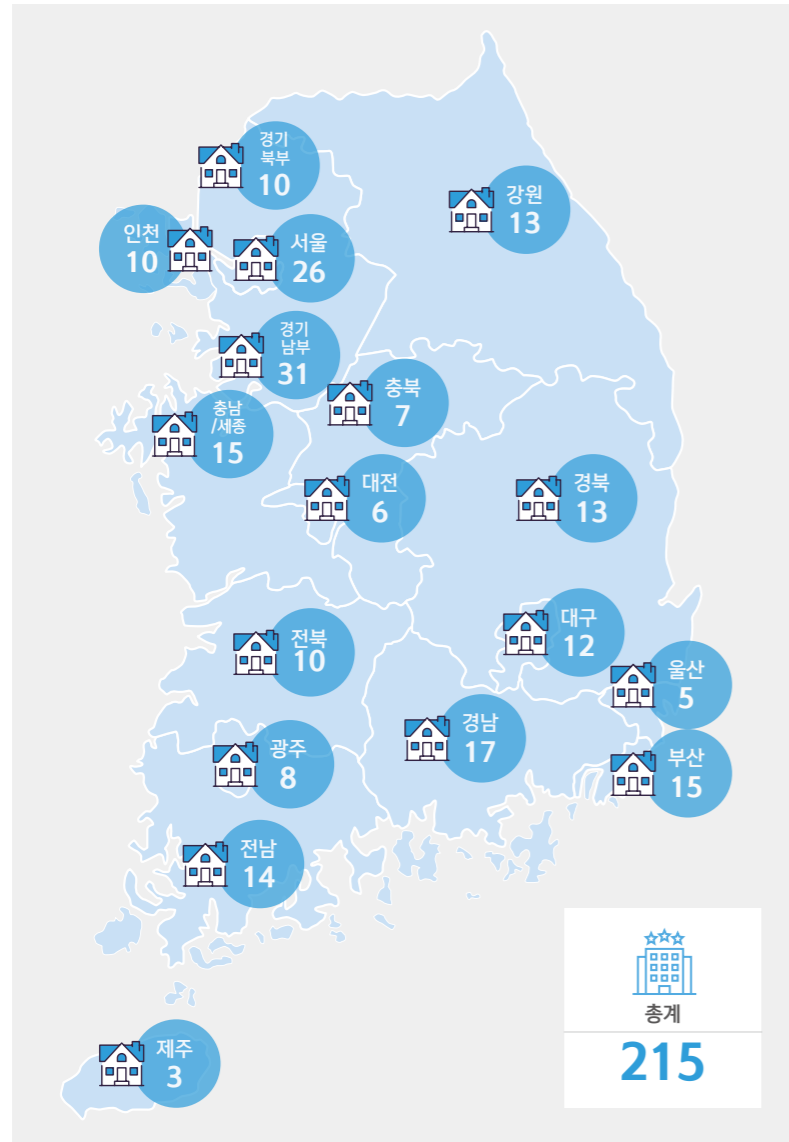
### 지원가구원 (단위: 가구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총계
단순사례	289	348	351	337	561	1,886
집중사례	160	180	125	168	-	633
총계	449	528	476	505	561	2,519

###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총계
단순 사례	121,970,000	147,000,000	146,000,000	125,990,000	210,700,000	751,660,000
집중 사례	171,300,000	210,320,000	171,000,000	201,000,000	-	753,620,000
총계	293,270,000	357,320,000	317,000,000	326,990,000	210,700,000	1,505,280,000

## 경찰청 지역별 참여기관명



### 서울

- |       |        |        |       |
|-------|--------|--------|-------|
| 강동경찰서 | 남대문경찰서 | 서초경찰서  | 종로경찰서 |
| 강북경찰서 | 노원경찰서  | 성동경찰서  | 종암경찰서 |
| 강서경찰서 | 도봉경찰서  | 성북경찰서  | 중앙경찰서 |
| 관악경찰서 | 동대문경찰서 | 송파경찰서  | 중부경찰서 |
| 광진경찰서 | 동작경찰서  | 수서경찰서  | 혜화경찰서 |
| 구로경찰서 | 마포경찰서  | 영등포경찰서 |       |
| 금천경찰서 | 서부경찰서  | 용산경찰서  |       |

### 인천

- 강화경찰서
- 계양경찰서
- 남동경찰서
- 논현경찰서
- 미추홀경찰서
- 부평경찰서
- 삼산경찰서
- 연수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중부경찰서

### 강원

- 강원경찰청
- 강릉경찰서
- 고성경찰서
- 동해경찰서
- 삼척경찰서
- 속초경찰서
- 원주경찰서
- 인제경찰서
- 철원경찰서
- 춘천경찰서
- 태백경찰서
- 평창경찰서
- 홍천경찰서

### 울산

- 남부경찰서
- 동부경찰서
- 북부경찰서
- 울주경찰서
- 중부경찰서

### 경기남부

- 과천경찰서
- 광명경찰서
- 광주경찰서
- 군포경찰서
- 김포경찰서
- 부천소사경찰서
- 부천오정경찰서
- 부천원미경찰서
- 분당경찰서
- 성남수정경찰서
- 성남중원경찰서
- 수원남부경찰서
- 수원서부경찰서
- 수원중부경찰서
- 시흥경찰서
- 안산단원경찰서
- 안산상록경찰서
- 안성경찰서
- 안양동안경찰서
- 안양만안경찰서
- 양평경찰서
- 여주경찰서
- 오산경찰서
- 용인동부경찰서
- 용인서부경찰서
- 의왕경찰서
- 이천경찰서
- 평택경찰서
- 하남경찰서
- 화성동탄경찰서
- 화성서부경찰서

### 제주

- 서귀포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
- 제주서부경찰서

### 충북

- 충북경찰청
- 상당경찰서
- 영동경찰서
- 옥천경찰서
- 진천경찰서
- 청원경찰서
- 흥덕경찰서

### 경기북부

- 가평경찰서
- 고양경찰서
- 구리경찰서
- 남양주남부경찰서
- 남양주북부경찰서
- 양주경찰서
- 의정부경찰서
- 일산서부경찰서
- 파주경찰서
- 포천경찰서

### 경남

- 경남도경찰청
- 거제경찰서
- 고성경찰서
- 김해서부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
- 남해경찰서
- 마산동부경찰서
- 마산중부경찰서
- 밀양경찰서
- 산청경찰서
- 양산경찰서
- 의령경찰서
- 창원서부경찰서
- 창원중부경찰서
- 통영경찰서
- 하동경찰서
- 합천경찰서

### 전남

- 강진경찰서
- 고흥경찰서
- 광양경찰서
- 나주경찰서
- 담양경찰서
- 목포경찰서
- 순천경찰서
- 여수경찰서
- 영광경찰서
- 영암경찰서
- 완도경찰서
- 진도경찰서
- 해남경찰서
- 화순경찰서

### 광주

- 광주경찰청 수사과
-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광주경찰청 형사과
- 광주광산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광주북부경찰서
- 광주서부경찰서

### 경북

- 경산경찰서
- 경주경찰서
- 고령경찰서
- 구미경찰서
- 김천경찰서
- 성주경찰서
- 안동경찰서
- 영양경찰서
- 영주경찰서
- 영천경찰서
- 청송경찰서
- 포항남부경찰서
- 포항북부경찰서

### 전북

- 군산경찰서
- 김제경찰서
- 남원경찰서
- 부안경찰서
- 익산경찰서
- 장수경찰서
- 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완산경찰서
- 정읍경찰서
- 진안경찰서

### 대전

- 대덕경찰서
- 동부경찰서
- 둔산경찰서
- 서부경찰서
- 유성경찰서
- 중부경찰서

### 대구

- 대구경찰청
- 강북경찰서
- 군위경찰서
- 남부경찰서
- 달서경찰서
- 달성경찰서
- 동부경찰서
- 북부경찰서
- 서부경찰서
- 성서경찰서
- 수성경찰서
- 중부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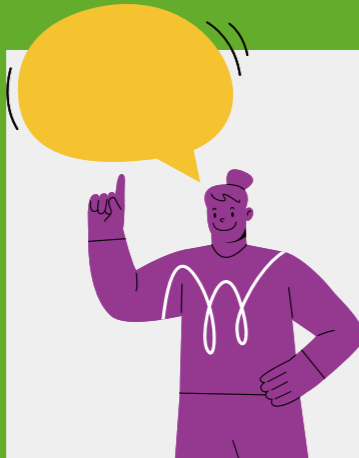
### 부산

- 강서경찰서
- 금정경찰서
- 기장경찰서
- 남부경찰서
- 동래경찰서
- 동부경찰서
- 부산진경찰서
- 북부경찰서
- 사상경찰서
- 사하경찰서
- 서부경찰서
- 연제경찰서
- 영도경찰서
- 중부경찰서
- 해운대경찰서

### 충남세종

- 충남경찰청
- 세종남부경찰서
- 세종북부경찰서
- 공주경찰서
- 금산경찰서
- 당진경찰서
- 보령경찰서
- 부여경찰서
- 서산경찰서
- 서천경찰서
- 아산경찰서
- 예산경찰서
- 천안동남서
- 천안서북경찰서
- 홍성경찰서





●●●

# 사회복지관 이야기

-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 경기 안산시부곡종합사회복지관
- 전북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대구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 충남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 포기하는 순간 찾아 온 “단비”같은 순간 삶을 다시 세우는 작은 기적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던 영훈 씨(가명). 그는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은 그를 점점 더 힘들게 했습니다.

## 사례

영훈 씨(가명)는 과거 사업 실패로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야간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그는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은 영훈 씨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어머니 명의의 노후화된 주택으로, 누수와 곰팡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집이 워낙 낡아 매입이나 임대도 어려웠고, 주택담보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 필수품인 세탁기마저 고장 나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에서, 수리비와 생계비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노령연금 33만 원과  
대리운전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빚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영훈 씨는 깊은  
좌절감과 막막함에 시달리며  
희망을 찾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도배, 장판 교체

##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영훈 씨의 어려움을 파악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영훈 씨를 추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지 도배와 장판 교체를 지원받았고, 노후화된 세탁기와 가스레인지도 새것으로 교체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원금은 어머니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어머니와 영훈 씨의 약물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돌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었고, 영훈 씨 역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생필품 구입과 생활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가족은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또한,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전문사례관리위원회를 열고, 사례관리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함께 영훈 씨 가족의 지원 종료 후 자립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애와 우울증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영훈 씨 가족이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내일은 '맑음', 균성 씨의 긍정적인 변화

영훈 씨 가정은 돌봄 문제, 열악한 주거 환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다양한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관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좌절 속에서도 다시 나아가려는 영훈 씨의 의지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원 이후, 영훈 씨는 삶에 대한 희망도 다시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노력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원이 정말 단비 같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어머니와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세심히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와 어머니(왼쪽 사회복지사, 오른쪽 어머니)



노후화된 가전제품(전자레인지) 교체

## 사회복지사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배유경 사회복지사입니다. 개입에 어려움이 유독 컸던 사례인 만큼 기관 내부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었고 동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민·관 기관들의 협력과 당사자 및 가족분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아 정말 힘들었지만, 이번 수상을 통해 큰 힘과 용기를 얻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례관리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2 사례관리 참여 과정 및 변화

이번 사례는 어머니에 대한 돌봄 문제부터 주거환경,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위기상황이 있었지만 자원의 한계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상자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분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본인의 노력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울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었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고 다시 한 번 노력해보고자는 의지를 생기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일상생활/주거/의료/교육까지 폭 넓은 지원 영역 덕분에 타 자원으로서는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지원사업처럼 든든한 복지지원 덕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주민 분들도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 4 사례관리자로서의 성장

다양한 사연을 가진 위기가구들을 만나고 개입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던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례관리자의 노력과 진정성이 있다면 대상자 분들도 조금씩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대상자분들 스스로도 깨닫는 모습들을 보며 사례관리자로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 5 동료 및 사회복지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사례관리자로서 사례관리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 어려운 과정을 해내고 있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분들께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전문성과 노력들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실천을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사회복지사 분들 응원합니다.



경기 안산시부곡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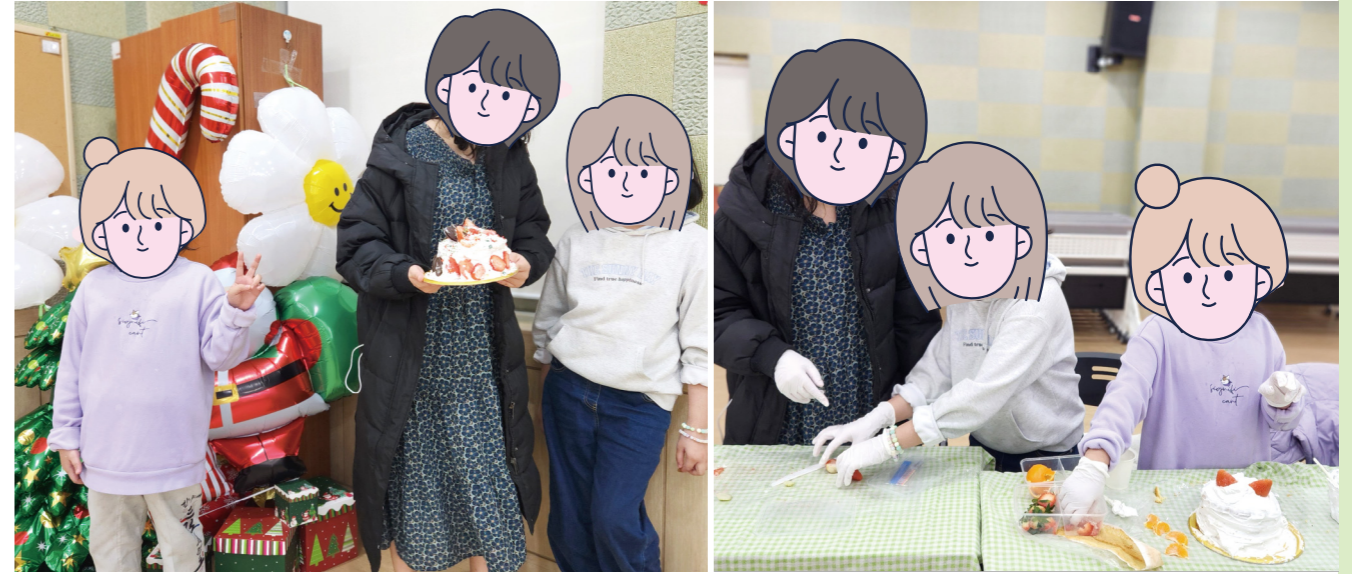
# 가족 해체의 위기 속에서 피어 오른 정 등돌린 가족이 마주보기까지

산만한 모습의 '문제 있는 아이', 냄새나는 옷을 매일 입고 다니는 아이, 환청과 환시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아이, 동생을 싫어하는 아이. 사랑이에 대한 수식어는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랑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돌봄의 공백과 치료의 부재가 키워낸 불행을 사랑이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과의 만남으로 여린 사랑이에게도 긍정적인 수식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 사례

사랑이네 식구는 7명입니다. 고등학생 지능 수준의 아버지와 중북장애(지적,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다섯 명의 남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다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가정 내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 판정으로 5명의 자녀 모두 시설로 분리되었습니다. 위생 관리를 포함한 돌봄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자녀들이 4년 동안 시설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첫째는 할머니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장애가 심한 막내는 여전히 시설 보호를 받고 있으며, 사랑이를 포함한 3명의 자녀가 원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복귀 후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적극적인 양육 태도로 자녀들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고 매일 같은 옷을 입어 위생의 문제가 상당했고, 식사 대부분은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취침 시간도 일정치 않아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패턴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이의 부모님에게 보호자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사랑(가명)이는 5남매 중 셋째입니다. 2021년 원가족으로 복귀했지만 갑작스럽게 분리됐던 기억으로 심리·정서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시설 생활을 시작하면서 복용했던 ADHD 약물 복용이 중단되었고, 환시·환청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해 무기력하고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랑이는 등교를 거부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핸드폰 게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이

## 가족이 바뀌기 시작하는 전환점

사랑이가 학교 교육 복지사와 첫 상담할 당시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제 옆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라는 말로 스스로 통제가 힘든 상황임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의 부모님은 지적수준이 평균 이하인 상태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기 힘들었고, 사랑이의 돌봄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관, 드림스타트 등 지역 내 많은 유관기관에서 개입하고 있었지만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더욱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사랑이 사례가 선정되어 사랑이의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부모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랑이가 변화할 수 있는 바탕을 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이의 지원금을 받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직접 은행에 가 서통장을 개설하고, 치료비를 치료센터로 입금하는 역할을 요청하였고, 어머니에게는 주 1회 치료실에 함께 동행하며 부모 상담에 참여하는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사랑이의 부모님은 약속을 잘 지켰고, 담당자 동행 없이는 치료를 받지 않던 사랑이도 이러한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스스로 치료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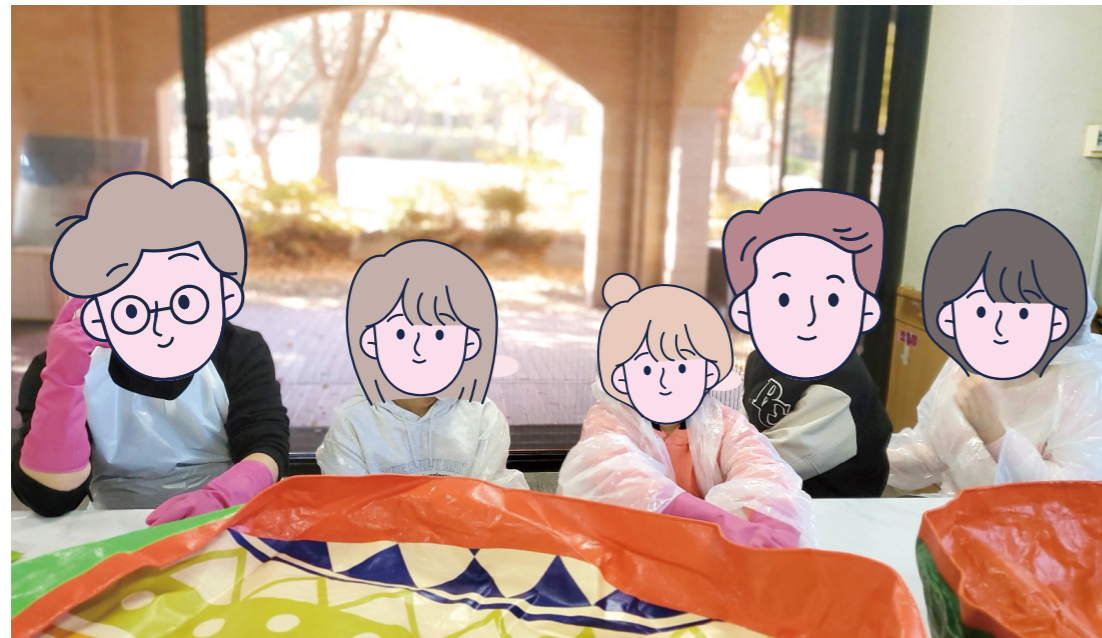


## 적이 아닌 '내 동생', 끈끈한 가족애

“선생님 치료를 가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요. 동생도 치료에 함께 다녔으면 좋겠어요.” 무 기력함에 빠져 타인과 상호작용이 안 되던 사랑이의 표현입니다. 안전한 동생과 늘 비교당 하여 둘 사이가 매우 안 좋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심리치료를 통해 안정감을 찾은 사랑이는 마음이 넓어져 동생도 생각할 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 덕분에 동생도 함께 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사랑이, 동생이 치료를 위해 함께 나서는 길이 즐겁습니다. 부모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언어 전달'이 중요하단 것을 배운 어머니의 변화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꽂꽂 닫았던 사랑이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라는 인사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른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변화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사랑이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목표에 따른 다각도의 지원이었기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역량과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이 있었기에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결석을 일삼던 학교를 매일같이 출석하며, 사랑이는 꿈을 키워갑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양육자의 공백이 커져 방임 상태로 성장하고 있었던 사랑이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입니다. 매일 꿈꾸는 희망찬 미래, 그 안에는 늘 미워하던 동생의 웃음과 행복도 함께합니다.



가족과 함께 치료에 참여하는 모습

## 사회복지사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안산시부곡종합사회복지관 오유민 사회복지사입니다.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사례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해매고 있을 때마다 든든한 수퍼비전과 격려를 주신 관장님, 부장님, 그리고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 사례관리 참여 과정 및 변화

제가 함께 만나고 있는 당사자는 단시간에 치유될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미 공적 급여로의 지원을 모두 받은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았고,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 신청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당사자의 어려움, 그리고 사례관리 계획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지원 지원사업 덕분에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으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당사자가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던 당사자가 복지관에 자주 오며, “선생님 치료를 가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고 말하는 등 마음의 문을 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들 역시 이런 당사자의 변화를 경험하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본 사업은 기타 다른 위기가정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단순히 현재의 위기상황을 잠재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사례관리자가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사례관리 전 과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례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 덕분에 교육 이수와 외부 자문을 통한 사례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4 사례관리자로서의 성장

점차 변화하는 아동과 가족들을 보면서 왜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까 조바심을 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저의 조바심을 돌아보게 되었고, 사례관리 과정이 사례관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당사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움직이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5 동료 및 사회복지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당사자와 함께하며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실 동료 사회복지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가올 2025년 한 해도 지지 않고, 함께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전북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가장의 빈자리를 채워 다시 설 수 있도록 삶의 희망을 찾아서

남편을 따라 고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미경 씨. 여섯 명의 아이를 육아하며 남편 내조하는 것이 큰 낙이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확장되어 가며 미경 씨 가족의 미래에 청신호가 켜지는가 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은 일곱 명의 가족은 거리로 내앉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신한금융희망재단과의 연결 끈을 잡게 되었습니다.

## 사례

미경 씨(가명)는 전업주부로 여섯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사회/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남편이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날의 사고 현장을 미경 씨와 자녀들이 목격하게 되면서 가족들의 정신적인 불안정이 시작되었고,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 씨 남편은 컨테이너 조립 사업장을 운영해왔는데, 당시 사업 확장 단계였기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이는 남은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에 결국 한정 승인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와 전 재산을 잃어 당장의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채권자의 빚 독촉까지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미경 씨와 아이들은 도망치듯 주거지에서 나와 야영장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 한정승인은 고인의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주거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넘기는 법적 제도



텐트 생활을 하던 미경씨 가족

## 하나씩 제 자리를 찾아가는 순간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미경 씨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원금을 통해 미경 씨 가족이 안전한 임시 주거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월세를 지원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긴급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연결하며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미경 씨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자립심을 키워갔고, 자녀들과 함께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심리적 안정과 가족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가족은 점차 안정된 생활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생활





팬션 청소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미경씨

### 여섯 자녀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원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경 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문제해결 욕구와 높은 만족도를 주었습니다. 또한, 나아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의지와 자립감을 높여 일상생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였습니다. 미경 씨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과 복지관의 도움 덕분에 다시 한 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주거지로 이사한 미경씨 가족

## 사회복지사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의 홍은석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번 표창을 받게 된 것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협회와 재단, 그리고 복지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 2 사례관리 참여 과정 및 변화

올해 사례관리 업무를 하면서 자원 연계와 지원 사업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던 중,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의/식/주 관련 포괄적인 경제적 지원에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참여했습니다.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대상자에게는 당시 직면한 경제적 욕구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복지관과 대상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개입을 통해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현재 대상자는 지역사회 내 지원이나 공적 부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미래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례관리 업무를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연계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례를 발굴하고 유관 기관들과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 4 사례관리자로서의 성장

대상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니, 이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며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개입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관리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업무로 지치고 힘들었던 제게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5 동료 및 사회복지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사례관리 업무를 하면 가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료분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상자에게도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전국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을 응원합니다.





대구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 가장의 자리에 선 소년 소녀의 꿈

## 어른의 자리를 대신하여 살아 온 소녀

민주 씨 삼남매는 미성년자일 때 부모없이 셋이 생활했습니다. 위생과 경제 관념 등 많은 것을 부모에게 배우며 성장해야 할 시기였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공백이었습니다. 첫째가 군 입대하며 가장의 자리에 서게 된 민주 씨는 자신과 동생을 모두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에 문을 두드리며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 사례

갓 성인이 된 민주(가명) 씨는 사실상의 가장입니다. 2012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오빠, 동생 네 식구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생활비도 끊긴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였던 삼남매끼리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 후, 오빠가 군 입대를 하면서 민주 씨는 중학생 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미용실 인턴으로 일하고 있지만 동생의 학업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모집 2층에 거주하고 있어 월세 지출은 없으나 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 난방비와 전기세 부담이 크며 파손된 창문, 곰팡이 핀 벽지와 장판은 교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쓰레기가 쌓여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끼니를 간편식으로 해결하는 성장기 동생이 안쓰럽지만 합니다.



### 어둠과 차가웠던 시간이 맞이한 전환점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려 애썼던 민주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씨는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 상황을 이해하고 목표를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지영 씨 가족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원금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곰팡이로 가득했던 집은 쾌적하게 바뀌었고, 동생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 씨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대학교 복학이 가능해졌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조금이나마 삶의 여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방문



주거환경개선 실시



# 사회복지사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이기환 선임사회복지사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례세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저 혼자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복지관 동료들, 지역 내 유관기관 그리고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사회 내 더 많은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 2 사례관리 참여 과정 및 변화

상기세대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아버지는 집에 거의 방문하지 않고, 연락·생활비 지원 등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남매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부모 없이 생활하는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세대였습니다. 상기 세대는 일상생활 영위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본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이전, 상기세대는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본 지원사업을 통해 2차까지 이어진 주거환경개선으로 도배, 장판, 가구 교체 등 개선이 이루어졌고, 세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기인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용실 인턴생활을 그만두고 대학교 복학을 준비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이 선정되기까지 기간이 걸리다보니 생계비가 걱정이었는데, 생계비 지원을 통해 상기인이 갖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다른 지원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 측면에서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비정기적이고 신청 후 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원사업은 정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례대상자의 구체적인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4 사례관리자로서의 성장

본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대상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한가지로 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욕구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 5 동료 및 사회복지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사례관리는 결코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늘 함께하는 복지관의 동료들이 있고, 옆에는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들 때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지역 내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을 어떨까요? 멀리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노후화된 도배, 장판 교체

### 꿈꾸며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

민주 씨는 “동생과 제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꿈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한금융희망재단과 복지관 선생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은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복학도 하고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면서 저와 동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와 전혀 인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역시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후원물품 전달



충남 당진북부사회복지관

# 간호사로 자립할 그날을 향해

## 자립준비청년의 희망 회복기

시설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은 세상에 나와 처음 만난 작은 돌부리에도 큰 좌절을 겪곤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알려줄 누군가가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범 씨 역시 자립을 준비하던 중 난관을 만난 이후 꿈을 잃을 만큼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만나고 도움을 받으며 다시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

스무 살에 시설에서 나와 자립 준비를 시작할 때, 영범(가명) 씨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 하지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종료된 후로도 영범 씨는 여전히 학생입니다. 반복적인 휴학으로 학사일정은 3년쯤 늦어졌고,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지친 영범 씨는 스스로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자신이 과연 남을 간호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을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던 영범 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직후, 함께 생활하며 학비를 대주겠다는 친아버지와 고모 부부를 믿고 사업 권유를 받아들였다가 빚을 지게 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자립수당 종료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정보가 부족한 탓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생계를 꾸리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쫓겨 학점 관리도 소홀해지면서 학사 이수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치아 건강이 크게 나빠져 음식을 먹기 힘든 지경이 되었는데도 돈이 없어 참아야 했습니다. 치료하지 못한 치아 탓에 건강이 나빠지고 외적인 자신감마저 떨어지니, 간호사로서 자립할 날도 점점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함께한 순간, 서로의 이야기 나누며(왼쪽 영훈씨, 오른쪽 사회복지사)

### 내일로 향하는 길을 되찾아준 손길

세상과 스스로에게 실망해 자신감을 잃은 영범 씨가 자립 의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학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도 필요했습니다. 생계비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를 신청해 지원받으면서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치과치료였습니다. 영범 씨의 신체적 건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만, 상태가 심각한 만큼 치료비 부담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움츠러들었던 영범 씨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고마운 손길이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곳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받은 영범 씨는 치과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상한 데다 남들 앞에서 마음껏 웃을 수도 없어 위축되었던 영범 씨는 치과 치료 후 차츰 건강을 회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치료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지원해준 신한금융희망재단과 지역 치과의 도움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간헐적 금연에 도전하고 술도 줄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꿈을 잃어가는 사이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을 비롯한 외부 지원과 함께 공적 지원도 받게 된 영범 씨는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염두를 내지 못했던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는 일은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주말을 활용해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영범 씨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도 큰 변화입니다. 사례관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영범 씨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스스로만 탓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영범 씨가 온전히 자립하는 날까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고 지지해줄 것입니다.



## 다시, 세상의 빛이 되기를 꿈꾸며

영범 씨는 믿었던 가족의 권유를 받아들였다가 빛을 진 이후 어려워진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해 좌절을 겪었습니다. 영범 씨처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시간과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한 자립준비청년은 난관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난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미래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영범 씨 앞에 놓인 세상은 냉랭하고 외롭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아무 힘도 없다고 느낀 영범 씨는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범 씨 안에는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할 능력을 갖추 때까지 버틸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실제로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제공받은 영범 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의 냉랭함에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소중한 꿈까지 잃어버릴 뻔했던 영범 씨는 이제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함”을 느끼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희망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 저의 꿈을 다시 추구할 용기를 얻었다”는 영범 씨는 자신이 받은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햇살 같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매일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하는 영범 씨

## 사회복지사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 한수지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후, ‘잘 돕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례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가 자신의 속도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사자의 삶을 주인공처럼 빛낼 수 있도록 돕는 ‘매니저’ 역할에 충실하며,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당사자가 자기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매니저이자 사회복지사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사례관리 참여 과정 및 변화

당사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로 인해 학업과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지원과 치료 치료를 통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첫째, 긴급한 욕구(문제, 어려움 등)를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당사자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복잡한 절차나 시간을 줄였고, 이러한 빠른 지원은 사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당사자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원을 연계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당사자가 안정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현장의 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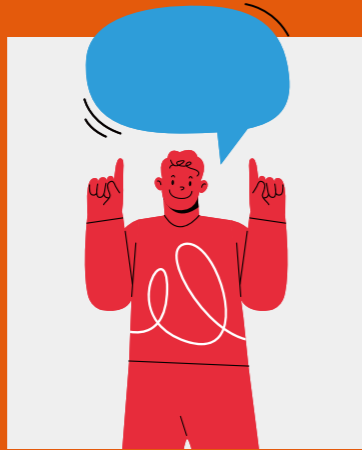
### 4 사례관리자로서의 성장

자립준비청년에게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례를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사례지원의 시작점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당사자가 간호사라는 꿈을 향해 자신감을 되찾고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자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당사자와 신뢰를 형성하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것은 저에게도 매우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 5 동료 및 사회복지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사례지원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동료 사회복지사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들이 당사자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청**  
**이야기**

- 강원 동해경찰서
- 서울 구로경찰서
- 서울 관악경찰서
- 충북 흥덕경찰서
- 대구 달서경찰서





강원 동해경찰서

## 불신과 분노에서 신뢰와 희망으로 강도상해 피해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복합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몸이 다치거나 돈을 잃는 피해지만, 정작 피해자를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강도상해 피해를 당한 우영 군과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우영군 가족의 마음 깊게 새겨진 상처를 위로하는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 사례

지적장애가 있는 우영 군(가명)은 고물상으로 생계를 꾸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증 자폐증이 있는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낡은 집 안에서 가족이 생활하고 고물상도 운영할 만큼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인데도 성인이 된 우영 군은 직업을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여 전 친구 4명에게 납치되어 17일 동안이나 감금과 폭행을 당했던 당시의 트라우마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 분노, 공포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영 군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우영 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우영 군의 어머니로부터 현금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돈은 약 800만 원, 가뜩이나 곤란한 우영 군 가족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피해였습니다. 신체적 폭행도 심하게 당해서 우영 군은 갈비뼈 골절, 다발성 좌상과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비오는 날이면 눈물을 쏟을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우영 군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우영 군은 또다시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움츠러든 채 세상으로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사람들

우영 군과 가족을 상처 입힌 것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것 역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영 군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에서는 피해자보호팀이 꾸려졌습니다.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더해 피해자인 우영 군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으로 경제적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트라우마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옹호기관과 지자체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우영 군 가족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아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도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우영 군 가족에게뿐 아니라 피해자전담 경찰관에게도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생계를 꾸리기도 빠듯한 형편에 범죄피해까지 당한 우영 군 가족에게는 당장의 생활과 우영 군의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제공되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은 가족의 숨통을 틔워 주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며 혼자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아버지 용식 씨는 지원금 덕에 우영 군 사건 이후 늘 부족했던 월세, 식비, 주유비 등 생활비 걱정을 덜면서 마음의 짐도 함께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세상에 나아갈 엄두를 못 내던 우영 군 역시 생활이 안정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고마운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단체 지원과 달리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지원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어서 경찰과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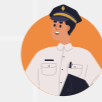


## 상처 입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

우영 군 가족은 범죄피해를 겪기 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식 씨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들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장애가 있어 보살펴야 하는 부모의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영 군은 성인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고 차츰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갔을 것이고, 용식 씨 부부도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가 되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 되지만 했습니다. 우영 군과 가족은 강도상해 범죄로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내일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빼앗긴 것입니다.

경찰서와 지자체 그리고 신한금융희망재단 등 민간단체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영 군과 가족은 범죄피해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로 일상을 회복할 힘을 얻는 지금, 우영 군은 분노와 우울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습니다. 용식 씨도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같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할 만큼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우영 군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도 분명 그를 이용하고 아프게 한 가해자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영 군과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영 군도 조금씩이나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피해로 상처 입은 마음에 세상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주는 사업입니다.



## 경찰관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동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피해자전담경찰관 민지는 경장입니다. 업무를 맡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선배님들의 우수사례도 보고, 후배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해주는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저 또한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부듯합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던 저였는데 이번 우수 사례에 선정된 것이 마치 '잘하고 있다'고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기쁩니다. 큰 상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더욱 열심히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 참여 과정 및 변화

범죄피해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자원 및 제도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의료,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나서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범죄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을 느꼈던 대상자가 점차 웃음을 찾으며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그동안 지자체의 공적지원 대상자와 복지시설 이용자, 아동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위주로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 신한금융희망재단과의 협업은 강력 범죄피해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대상자들에게도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4 업무적으로서의 성장

신한금융희망재단과의 협업으로 피해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공문을 보고, 지난 사건들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이라는 기관은 사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기적 개입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는 타 기관에 연계하고 마무리되는 방향이 많았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단기적으로 끝났던 사건들도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타기관 연계 이후 대상자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대상자들을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고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대상자들의 모습에 부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5 동료 및 업무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이 적어 많은 피해자전담경찰관 분들은 사비를 들여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늘어나는 등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 만큼 자연스럽게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업무환경 또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 폭력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찬 미래로

###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위기 탈출기

가정폭력은 때로 몸과 마음을 움아매는 늪과 같아서 벗어나려면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혼 직후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선영 씨는 첫째를 임신하며 이혼하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선영 씨 모녀에게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 사례

선영 씨(가명)는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전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처증이 있는 전남편은 자주 폭력을 휘둘렀고,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 두는 괴벽까지 있었습니다. 헤어질 결심도 했지만, 첫째를 임신한 것을 알고는 가정을 지키자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가 태어나 중고등학생이 되도록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양육과 교육에 정성을 쏟으며 소중하게 키운 아이들마저 가정폭력으로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선영 씨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혼하기 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남편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고,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남편의 의처증 탓에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50대의 선영 씨가 당장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고, 이혼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니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큰딸이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했지만 산재 처리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선영 씨에게는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례회의

#### 최악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한 집에서 살아온 가장에게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한 사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도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영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고 초기에는 폭력적인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주변의 도움이 있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선영 씨의 사건을 접수한 후 가장 먼저 가해자를 접근금지시키고 스마트워치 지급, 집중 순찰 등의 안전조치를 제공해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치를 지원했습니다. 소나무센터, 가족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가해자가 집 안에 쌓아둔 쓰레기를 치워 주고 요리와 청소 등을 도우며 선영 씨와 자녀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에 가해자가 생활비를 끊게 되면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선영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큰딸이 다리를 크게 다치고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는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선영 씨 모녀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것이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벌어진 상처가 봉합되지 않아 고통받던 큰딸에게 건강한 다리와 대학생활을 되돌려 주었고, 이혼 소송과 딸 간병을 마칠 때까지 정부 지원금도 월급도 없이 생활해야 하는 선영 씨 모녀에게 숨구멍이 되어 주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으로 변경된 주거환경

### 절망의 끝에서, 이제 행복할 시간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긴 선영 씨 모녀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잘 마무리되면서 정부에 기초수급 신청도 하고, 세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직업도 찾았습니다.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수료한 전문성을 살린 직업을 원했던 선영 씨는 현재 오전에는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로, 오후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큰딸은 대학생할 틈틈이 두 동생을 돌보며 네 가족의 가장이 된 선영 씨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선영 씨는 “막막했던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던 저와 아이들에게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다며 “도와주신 마음을 잊지 않고 저와 아이들도 주변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라고 감사와 다짐을 전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언제나 풀기 힘든 숙제를 안겨 줍니다. 선영 씨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생활비가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 기초수급 대상도 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선영 씨의 경우 큰딸이 다치는 사고까지 생기면서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덕에 용기를 잃지 않고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며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선영 씨의 감사 편지는 범죄피해 지원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향하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 학대의 악순환을 끊어내도록 돕는, 그래서 다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 경찰관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피해자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경사 우종완입니다. 올 한해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구로관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수사례로까지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 2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 참여 과정 및 변화

범죄피해자들은 병원비, 긴급생계비 등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제도적 한계 및 재원의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찰청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업무체결을 하여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이혼이 결정 나지 않아 국가의 지원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경우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온전히 독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살해 당한 가정의 경우에는 장례비, 병원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온전히 장례에 집중해 가족 서리가 슬픔을 돌보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범죄피해자들은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원의 경우 행정속도 및 재원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를 보여와서 범죄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2차 고통을 경험하는데, 조기에 신속히 지원하는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이 생겨 범죄피해자들이 너무나 원하던 일상으로의 회복에 빠르게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내 사례회의에서 사업을 홍보하여 구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등에서도 지원사업에 매우 감사해하며 범죄피해자들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촉매제가 되는 역할도 되고 있습니다.

### 4 업무적으로서의 성장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 보니 구청과 법무부에 지원 요청하는 수동적인 모습에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과까지 알다보니 직접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효능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하게 되는 등 업무적 적극성을 가지게 되며 제 업무를 매우 보람되게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 5 동료 및 업무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지원서를 쓰는 것은 경찰의 기존 업무와 너무나 다른 방식이라 어렵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업무보다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시는 경찰관분들 모두 어렵고 낯설지만 용기를 내셔서 지금처럼 많은 지원신청을 해주셔서 업무에 대한 보람과 감동을 더욱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 마음의 상처를 딛고 평온한 삶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찾기

부당한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에는 분노와 불신이 싹트기 쉽습니다. 그 폭력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면 마음을 다잡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어머니, 동생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온 정연 씨는 용기 내서 신고를 한 후에도 불안과 좌절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만나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 사례

정연 씨(가명)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족의 생계도 알코올 문제로 직장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책임져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다 손목을 크게 다치고도,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위해 무리해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정연 씨와 동생은 오랜 세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온 탓에 정신적으로 사회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자매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간단한 외출조차 어렵는데도 돈이 아쉬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 왔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정연 씨는 어머니와 동생의 몫까지 대신해 아버지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약 1년 전 새벽부터 술을 마신 아버지가 성적인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자

모든 내용을 녹음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정연 씨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든 마음을 다잡고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신고와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갑갑하고 막막한 마음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 지치고 불안한 마음에 위로를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처음 만났을 때, 정연 씨는 지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는데도 자꾸만 '가정폭력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조사과 국선변호사 선임 등의 수사과정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연 씨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입만으로 병원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어 정신과 치료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정연 씨 자매와 어머니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져 기소와 재판, 이혼소송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자 정연 씨도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공하기 어려운 공적 지원을 대신해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에서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듣던 정연 씨에게는 지원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연 씨는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감사의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무엇보다 동생, 어머니와 함께 정신과에서 약물과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밝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연 씨 가족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접근금지 상태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혼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과 보복의 위험이 남아 있는 집을 대신해 살 곳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덕에 당장의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면서 눈앞의 문제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 이혼소송 이후의 삶, 가정폭력 없는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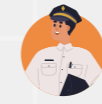


###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 정연 씨는 집밖을 나서기도 힘들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무엇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혼자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구직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가족에게서 힘을 얻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20대의 평온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좌절과 분노도 맛봤고,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으로 위로와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폭력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연 씨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으로 힘을 얻는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나와 같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범죄피해는 언제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는 반드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경우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연 씨가 그랬듯 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위로해 주는 사회의 온기를 느끼고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 경찰관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업무를 하고있는 경사 정경민입니다. 2018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특채로 경찰에 입직하여, 지역경찰에서 형사과를 거쳐 2022년부터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서에 있는 피해자보호팀에서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제가 수상을 하게 되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 2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 참여 과정 및 변화

가정폭력 피해 가정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고,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단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접수를 했더라도 중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적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수사례에 공모한 피해 사례도 수사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피해자의 생계 문제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기에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도 우울증으로 힘든 상태임에도 어머니를 대신하여 증거자료, 피해자조사, 국선변호사 선임 등 홀로 힘든 수사 과정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지원이 결정되면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병원비도 해결하게 되어 목소리가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해자도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등, 일상생활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가해자 보복 우려, 자녀 문제 등으로 처벌불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적 지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도 즉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구직 활동을 시작할 정도로 심리적 안정을 얻는 등 단순히 금액을 떠나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활에 희망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4 업무적으로서의 성장

업무를 하다 보면, 사법기관에서 혐의 여부를 가려내는 과정이 대부분 피의자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막상 피해자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그 이상의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 연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5 동료 및 업무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 담당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도 새로운 사건이 밀려오기에, 앞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과 피해자들을 기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은 경찰서 내에서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때 비로소 시작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동료분들에게 항상 힘내시고, 자기 자신도 잘 챙길 수 있도록 틈틈이 휴식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북 흥덕경찰서

## 상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의 일상 회복기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엄청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그 죽음이 악의적인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 유가족은 슬픔을 추스를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마주해야 합니다. 일도 생활도 함께하던 어머니를 살인사건으로 잃은 준우 씨는 이미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그에게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어준 것은 경찰과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도움이었습니다.

### 사례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지만, 준우 씨(가명)에게 어머니는 조금 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불안장애 탓에 대부분의 30대 남성처럼 독립해서 사회에 나아가지 못한 준우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의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어머니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준우 씨는 어머니가 살해당한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목격자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준우 씨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저마다의 슬픔을 감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생 준형 씨 역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수사에 대한 불안, 어머니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고통받았습니다. 외삼촌은 누나를 잃은 슬픔에 더해 누나가 범죄에 희생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준우 씨는 목격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살인범을 찾아 처벌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일 여유조차 갖기 어려웠습니다.

준우 씨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서 보살핌을 받았으니 어머니의 사무실과 재산 정리, 지자체 행정처리 같은 일도 자신의 몫이라고 여겼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어렵기만 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충격과 상실감으로 흔들리는 가족을 짓누르는 부담이었습니다.



### 슬퍼할 틈을 만들어 주는 맞춤형 지원

경찰에서는 준우 씨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위기개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동생 준형 씨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심리 상담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신 수사에 대한 답답함을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와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준우 씨의 경우 심리적 어려움도 컸지만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큰 과제여서, 심리 상담과 함께 관련 절차들에 대한 안내와 경제적 지원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준우 씨 앞에는 행정 절차와 장례 절차, 세금 등 공과금 납부, 어머니의 사무실과 재산 정리 등의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현장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은 데다 불안장애로 일상적인 일들에 서툰 준우 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마음껏 슬퍼하지도,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막막해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 이후 수입이 없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장례비 등 공적 지원에 더해, 준우 씨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례관리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금은 장례 준비와 공과금 납부 등 소소한 생활비부터 어머니의 사무실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공적 지원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곤란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이 준우 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체포되었고 1심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행정 업무도 차근차근 마무리가 되어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준우 씨도 이제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동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는 마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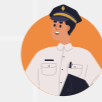


### 상실의 충격에서 치유와 성장의 길로

준우 씨와 같은 범죄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도울 때 심리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실적 고충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심리적 지원만 하다 보면 범죄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일어설 힘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준우 씨 역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금과 피해자전담 경찰관의 도움으로 행정적인 절차와 비용을 처리하고 일상생활을 차근차근 회복하면서 어머니 없이 홀로 서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와 달리 이제는 일상생활을 잘 해내갈 만큼 안정된 준우 씨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 감사함을 느낄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1심 결과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의 형량에 아쉬움을 느끼고는 “저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나설 만큼 능동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으로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 상처를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찰을 비롯한 공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저마다의 사정과 상황에 따른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 줄 수 있는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공적 지원의 빈 곳을 채워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준우 씨는 직접적으로 제공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금으로 눈앞의 문제들을 처리하며 스스로 일상적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 경찰관 인터뷰

### 1 소개 및 수상소감

청주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서 피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진 경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에 뽑히게 되어 영광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 2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 참여 과정 및 변화

피해자 유족들은(살인사건 피해자유족지원) 소중한 사람의 죽음만으로도 경황이 없는데,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 비용도 많았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게 없을까 하다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힘내서 다시 살아보겠다.” 하시면서 연신 감사 인사를 해주시며,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보통의 일상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일이니깐요.)

###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제일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7개월 밖에 되지 않는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분유값이 없어 힘들어하는 피해자 등을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면서 한 줄기 살아가는 희망을 드린 것이 제일 큰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 4 업무적으로서의 성장

3번에서와 같이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가는 피해자 유가족, 분유값이 없어 힘들어 하는 피해자가 아이와 함께 다시 웃음을 찾는 걸 보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희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저도 제 위치에서 더 열심히 피해자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어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5 동료 및 업무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전국에서 피해자 발굴 및 지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을텐데, 피해자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 다섯 글자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걸 다 아실꺼예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

## 폭력 없는 환경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생계는 때로 폭력만큼이나 두렵고 위중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복 씨는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이 되어 도망쳐 나왔지만, 주거와 생계를 해결할 길이 막막하여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홀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사례

희복 씨(가명)는 남편 명의 LH전세임대주택에 살며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으로 가능한 만큼씩 요양보호사 일을 해 약간의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독립한 자녀들도 모두 타지에 살고 있어 남편을 떠나서는 살 집도 생계비도 제대로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술에 취해 목을 조르는 남편을 피해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복 씨가 피신한 사이 남편은 칼로 복부를 자해했고, 도저히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희복 씨는 긴급피난처에 자원 입소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희복 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금씩 해오던 요양보호사 일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나오면 당장 살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더 이상은 얽히기 싫다는 생각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보람도 없이, 이번에는 생계라는 현실의 벽이 희복 씨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겨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살길이 막막했던 희복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나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 막혀 있던 현실의 벽을 허무는 손길

희복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태였지만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와 심리 상담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이혼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얽히지 않기를 바랄만큼 가해자인 남편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희복 씨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나와 새로운 주거지로 옮긴 후까지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도 LH대구경북본부와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희복 씨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에서 큰 금액을 지원받았고, 대한적십자사 긴급지원 생계비와 대구경찰청 업무협약기금도 지원받았습니다. 처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희복 씨에게 퇴소 이후의 삶은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으면서부터 벽 너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복 씨가 처음 집을 나와 긴급피난처를 찾은 지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났고, 희복 씨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꾸준한 심리 상담은 불안과 절망뿐이던 희복 씨의 삶에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미 받은 지원으로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앞으로도 곁에서 지켜보고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희복 씨에게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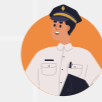


**절망을 딛고 홀로 서기를 준비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회복 씨처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으로 얽혀 살아온 관계만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어떻게든 빨리 관계를 끊어 내고 싶다는 바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가혹이나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 비해 넉넉지 않은 지원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과 치료의 경우 진료 시작 후 3개월이 지나야 발급되는 진단서를 근거로 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복 씨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목숨을 위협받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태였으며, 정신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만큼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심리적·경제적으로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한 희복 씨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지 한 달여 만에 대상으로 선정되고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비로소 끝이 없을 것 같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홀로 서는 날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은 피해를 회복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밑천인 동시에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홀로 서기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응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삶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신한금융희망재단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는 희복 씨처럼,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는 한 조각 희망의 빛이 절실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피해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사연과 상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빠르게 제공하여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관 인터뷰**

**1 소개 및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대구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마진영 경장입니다. 먼저 지난 5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범치는 늘 우리 주변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던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낍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 참여 과정 및 변화**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경제적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이 많고, 타기관은 지원금 자체가 크지 않아 피해자가 일상회복을 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에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자는 한 평생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피신한 사이 남편은 칼로 복부 자해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의 삶이 막막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용기내어 홀로서기를 준비 중입니다.

**3 사업의 의미(긍정적 영향 및 지역사회 변화 등)**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공적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업무적으로서의 성장**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 피해자분들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라는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저의 작은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보탬이 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이 다시 웃는 내일을 꿈꾸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동료 및 사회복지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

티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주임님, 반장님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매 순간 피해자들의 아픔에 따뜻하게 공감해주시는 동료분들, 스스로도 꼭 케어해주시고 감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힘내세요.